

보도자료

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



서울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

배포일	2018. 11. 12.(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02-880-5054, 9072)
담당부서	홍보팀	문의	국제협력본부 (880-8692)

서울대 박찬욱 총장직무대리, 홋카이도대 총장 예방 및 제21회 홋카이도대-서울대 공동 심포지엄 참석

□ 서울대학교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2018년 11월 8일(목)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21회 홋카이도대-서울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.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‘대학 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와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’ (Challenges for Academic Libraries and Roles of University Museums and Galleries)이었다.

□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. 또한, 서울대와 홋카이도대 등 우수 대학들이 이러한 도전에 힘을 합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결되고 집합적인 지식, 즉 지식 중의 지식(Knowledge of knowledge)을 창출하는데 도서관과 박물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이날 기조연설에서 서이종 중앙도서관장(사회과학대학 교수)과 정영목 교수(미술대학)가 각각 서울대 도서관과 미술관의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.

□ 심포지엄 참석에 앞서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는 홋카이도대 삿포로 캠퍼스를

방문하여 토요일 나와(Toyoharu Nawa) 홋카이도대 총장을 예방하였다. 이날 예방에서는 양교의 학생 및 국제화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, 전창 후 학생처장(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)과 구민교 국제협력본부장(행정대학원 교수)이 배석하였다.

□ 서울대-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은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교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서울대와 홋카이도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. 올해 서울대-홋카이도대 심포지엄은 양교 간 10개 분과세션(사회학과, 수리과학부, 지구환경과학부, 재료공학부, 물리교육과, 의학과, 안과학교실, 치의학과, 보건대학원, 융합과학기술대학원)이 참여하여 세션별 주제·목적·내용을 정하여 분과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.